



energy snapshot

Analyst. 손 지 우 / 3773-8827, jwshon@sk.com

SABIC 매각으로 아람코IPO 취소 가능

- ▶ 사우디 아람코가 사우디 국영석유화학회사 SABIC의 지분을 인수한다면, MBS 입장에선 아람코를 상장하지 않고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됨. 게다가 물가 인상에 대한 내부 불만 또한 잠재울 수 있는 묘안이기도 함

S. Aramco가 SABIC 인수를 IPO보다 우선한다는 소식

사우디, 아람코 IPO 대신 석유화학 공룡 SABIC 인수?

(전략) 최근 외신들이 사우디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람코는 사우디 국부펀드 PIF가 소유하고 있는 SABIC 지분 70% 전체를 인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된 지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사실로 판명될 경우 세계 원유 시장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투자은행 JP모건과 모건스탠리가 아람코의 SABIC 지분 매입 고문으로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아람코 IPO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데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하략)

자료 : 에너지경제(2017년 7월 26일), SK증권

- 지난 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흘러나왔습니다. IPO를 준비 중이던 사우디 아람코(S. Aramco)가 그보다 국영석유화학회사 SABIC 인수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 꽤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만약 이 일이 성사될 경우 아람코 IPO는 취소 가능성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사우디의 실세 모하메드 빈 살만(MBS)이 아람코 IPO를 추진한 이유는 결국 스마트시티 NEOM을 건립하기 위한 현금확보 차원이었습니다.(자세한 내용 1/29 보고서 “The big one” 참조)
- 아람코가 예상대로 \$2조에 상장될 경우, 유동화 5% 기준 약 \$1,000억의 현금이 사우디 국부펀드 PIF에 유입예정이었습니다
- 그런데 현재 아람코가 매입하려는 SABIC의 지분 70%를 보유한 곳이 PIF라는군요.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MBS의 강도높은 경제개혁 드라이브로 내부 잡음 발생

사우디 시민들 '우유 불매운동' 왜? 경제 개혁으로 물가 상승하자 불만 표출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사우디 국민들의 불만이 엉뚱하게도 한 유제품업체로 튀었다. (중략) 사우디 시민들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사우디 최대 유제품 업체 알마라이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알마라이가 최근 1L짜리 우유의 가격을 0.25리yal 인상했기 때문. (중략) 알마라이는 단지 소비자들의 분노가 표출된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다. 며칠 전에는 사우디 전력공사가 타깃이 됐다. (중략) 평소보다 2~3배 높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사우디 전력공사의 고객들은 이 업체에 불만사항을 앞다퉈 등록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지 오카즈는 전했다.

자료 : 아시아투데이(2017년 7월 4일), SK증권

- 즉 아람코가 PIF로부터 SABIC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SABIC의 현금이 PIF로 유입된다는 것인데, 이는 아람코의 IPO를 통해 PIF가 현금을 쥐는 것과 어차피 크게 다를 것 없는 그림입니다
- 게다가 현재 SABIC의 시가총액은 약 \$1,000억으로서, PIF가 보유한 70%의 매각 가치는 \$700~800억입니다. 이렇다면 애초 아람코 IPO를 통해 얻고자 했던 현금과 유사한 규모인 셈이죠
- PIF로서는 굳이 아람코를 상장하지 않고도 현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 또 하나, 최근 사우디 국민들이 탈석유 경제개혁에 의해 자국 내 물가가 상승하자 불만이 쌓였다고 합니다. 국민지지도를 생각해야 하는 왕세자 입장에서는 아람코 IPO를 위한 석유기반요금(전기, 휘발유 등) 국제화를 추가 추진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 여려모로 볼 때 MBS 입장에서 SABIC 지분 매각은 묘안이네요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건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